

한국 문화·역사지리학 50년의 회고와 전망

류 제 현*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계에서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 분야는 문화지리학, 역사지리학, 지리학사, 사회·경제사, 문화사, 인류학, 조경학 등의 여러 가지 학문분야를 망라하는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에서 이 분야에 관련된 논문이 주요 학술지에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1960년대 초이며, 1970년대에는 이 분야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는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대 비약을 가져온 시기이며,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은 더욱 전문화되어 완전히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어: 문화·역사지리학, 문화지리학, 역사지리학, 지리학사, 버어클리(싸우어)학과,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인간주의, 종합적 이해.

1. 서 론

한국지리학계에서 그동안 통용되어 온 문화·역사지리학이라는 용어는 실로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지칭한다. 문화역사지리학 또는 역사·문화지리학이라고도 불리는 문화·역사지리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활동해 오고 있다.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에는 지리학 전공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지리학 비전공자도 상당수 가입하고 있다.¹⁾ 학회 회원들의 지리학 전공을 확인해 보면, 문화지리학, 역사지리학, 지리학사, 촌락지리학, 도시지리학 등의 분야 중에서 두개 이상을 표시하고 있다.²⁾ 지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회원들은 대체로 조경학, 향토사, 한국사, 인류학, 민속학 등을 전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역사지리학은 타학문은 물론이고 지리학의 세부 전공 몇개를 포괄할 정도로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이 광범위한 학문 분야이다.

필자의 주관적인 소견으로는 그것이 과소평가

의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이 아직은 학문적 토대의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계에는 일정한 유형의 학파로 인식될 만큼 뚜렷한 흐름의 연구경향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역사지리학의 지난 50년간의 학문 발전 과정을 회고함에 있어서 연구주제와 방법론의 경향을 분류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현재 궁극적으로 미래의 연구경향을 전망하는 임무가 주어질 필자로서는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의 현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특징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문화·역사지리학 분야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그들의 출신학교면에서 보면 대다수가 넓은 의미의 미국의 버어클리(Berkeley)학과(싸우어[Sauer]학과)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태반 역시 그들이 이수한 교육과정을 보면 영국의 다아비(Darby)학과와 미국의 버어클리 학과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두개의 학파를 중심으로 한 영미

*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

지리학의 발달과정을 음미하는 일은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영미 지리학계에서 역사지리학, 문화지리학, 지리학사의 학문적 전통이 수립되는 과정과 그러한 학문적 전통의 최근 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면,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일정한 관점이나 문제의식을 얻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리학사, 특히 한국지리학사를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광의의 문화·역사지리학에 소속된 분야로 다루고자 한다. 사실, 근대지리학에서는 지리학사를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농후하지만, 지리학의 고전적 전통은 지리학사와 역사지리학을 확연히 구별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기서 지리학사를 문화·역사지리학의 하부 분야로 취급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로서 한국지리학사 자체를 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문화·역사지리학 전공자가 지리학사를 부수적으로 연구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리학사에 관한 지식이 문화·역사지리학 연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리적 개념과 방법의 발달에 관한 이야기는 문화·역사지리학자에게 매력적이며 중요한 것이다. 지리학사는 과거 한 시기의 지리학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지리학의 특정한 전통과 개념의 기원을 알려 준다. 특히, 과거의 지리를 연구하고자 하는 지리학자는 과거에 전개된 지리학의 역사로부터 연구할 내용과 방법을 시사받을 수 있다.

2. 한국 문화·역사지리학의 영역

인간 개인이나 인간 집단을 '땅의 이치'와 관련시켜 묘사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인문지리학의 연구방법론은 계량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의 두개의 부류로 나누어진다. 계량적 방법론은 연구의 초점을 단기적인 성과와 현재의 응용에 두고 현재의 상황이나 최근의 변화를 분석하는 분야에서 많이 쓰여져 왔다. 역사적 방법론은 현재의 응용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으면서 과거 어느 한 시기의 상황이나 장기간의 변화를 연구하는 분야에

많이 적용되어 왔다. 후자의 방법론에 의한 연구의 집합을 때로는 역사지리학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영미 지리학계를 중심으로 근대지리학 이후에 나타났다. 영국, 캐나다, 일본, 미국의 중서부와 동북부에서는 역사지리학이라는 별개의 명칭을 얻을 만큼 지리학 연구에 역사적 방법론을 전적으로 적용하는 학파가 발달하였다.

문화지리학이라는 용어를 지리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쓰는 나라는 독일과 미국의 서부와 남부(버어클리 학파)이다.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만, 문화지리학이라는 분야는 역사지리학이라는 명칭이 명시적으로 쓰이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다. 실제로, 문화지리학은 문화의 개념을 협의로 하느냐 광의로 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영역이 달라진다. 독일의 문화지리학은 전통적으로 광의의 문화개념을 토대로 발달하였으므로 영미의 인문지리학과 동의어에 가깝다. 미국의 문화지리학은 주로 미국 서부의 버어클리 학파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독일 보다는 좁은 범위의 연구영역을 설정하였다. 이들 두개 유형의 문화지리학은 기원과 전파의 과정을 분석하는 역사적 방법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최근에는 영국, 캐나다, 미국의 동북부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지리학의 변종이거나 또는 버어클리 학파의 문화지리학의 대안으로서 '신문화지리학'이 출현하고 있다.³⁾

이와 같이, 역사지리학과 문화지리학은 영역이 국가별로 다르고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으므로, 아직은 성숙기에 들어 갔다고 보기 어려운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의 영역을 규정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뒤따른다. 현재로서는 학자들마다 자신들이 교육받은 배경에 따라 문화·역사지리학의 영역을 조금은 다르게 상상하고 있지만,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에 있어서 만큼은 최소한의 동류의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동류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지리학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열띤 토론을 통하여 이론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문화·역사지리학의 영역에 대한 이론적 합의가 모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하나의 이유는 아직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종사

자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연구 수준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충분하지가 않은 까닭에 상호간 열띤 이론적 논쟁을 벌일 상황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서 한국에서는 인문지리학의 특성상 역사지리학과 문화지리학을 분리하기보다는 통합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필자 개인으로서는 고지도와 같은 자료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귀중한 과거지리의 연구자료이며 한국은 문화사의 내용이 어느 나라에 못지 않을 만큼 풍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필자는 영미의 지리학계에서 분리되어 있는 역사지리학, 문화지리학, 지리학사를 한국의 지리학계에서는 하나의 통합된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본고에서는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을 영미의 역사지리학, 문화지리학, 지리학사를 한국 실정에 맞게 통합시키거나 재창조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지리학의 한 분야라고 미래지향적인 정의를 하고자 한다.

3. 한국 문화·역사지리학의 발달과정

1) 과거와 현재

한국에서 '문화·역사지리학'에 관련된 논문이 세간에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이다. 1960년대는 이찬을 제외하면 주로 일제치하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지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문화·역사지리학을 이끌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연구물 중에서 '역사지리'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예는 이찬, 노도양, 이성학의 논문들 뿐이다. 그 나머지 연구들은 스스로 문화·역사지리학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소속감을 가지고 쓰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은 대체로 취락의 입지와 형태를 역사적이고 생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정의한 문화·역사지리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⁴⁾

스스로 '역사지리학'이라고 규정한 연구 중에서 노도양(1969a: 1969b)의 것은 15세기의 수

산업의 상황을 복원함으로써 영국의 다아비의 단면 복원법을 시도한 과거지리의 유형에 해당하고, 이성학(1968: 1969)의 것은 역사문헌에 등장하는 옛날 지명, 행정구역, 위치 등을 현재의 것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문헌고증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찬(1963)은 1960년대 미국에서 문화·역사지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일한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지리학 박사 논문을 최초로 제출한 한국인이기도 하다. 그의 박사 논문은 당시 미국의 버어클리 학파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도작의 기원과 전파과정에 충실히 적용한 것이다.

1960년대는 또한 이찬과 노정식이 고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사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선보인 시기였다. 이찬(1968)은 한국지리학사의 개설을 쓰면서 이 분야에 대한 무한한 연구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노정식(1969a: 1969b)은 고지도와 실학파의 지리사상을 실험적으로 논의하였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두 사람은 한국지리학사에 대한 초기의 관심사를 다음 시기까지 끈질기게 지탱해 나갔다는 점에서 한층 돋보인다.

1970년대에 들어 오면 1960년대에 활약하던 문화·역사지리학의 개척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계속 이어 나가는 한편, 이들로부터 배운 제2세대들이 새로운 연구자로 등장한다.⁵⁾ 이찬과 노정식은 한국 고지도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척시키고 있으며, 이성학은 문헌고증학의 방법을 행정구역의 복원에 적용하는 연구경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찬(1975)은 중부지방을 사례로 하여 민가형태의 분류와 이에 따른 민가의 분포 패턴을 식별하는 연구 방법을 시도하였다. 오홍석(1974)은 제주도 취락의 입지와 형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취락의 발달과정에 담겨 있는 제주도의 환경과 문화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나도승(1979)은 금강유역의 하안취락이 하향의 쇠퇴와 함께 겪은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을 주도명멸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제2세대들이 발표한 논문들은 대체로 석사 논문 수준에 머물고 있었지만 이 논문들에 의하여 문화·역사지리학의 연구주제와 방법론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문

화지리학'이나 '역사지리학'의 범주에 분류시키기를 서슴치 않았다는 점에서 1970년대에는 문화·역사지리학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보웅(1974a: 1974b: 1977: 1978)은 문화지리학의 고전적 연구 주제인 민가에 관심을 두면서 한국 민가의 원형을 발굴하고 민가의 분류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최영준(1974)은 과거지리를 경관 개념을 중심으로 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통하여 복원하는 다아비의 단면 복원법을 개항을 전후로 한 인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그의 논문은 경관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논문으로 '문화·역사지리학'의 영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부식(1978)은 당시 인류학계에서 유행하고 있던 '동족촌'이라는 촌락 유형을 소재로 한 연구가 지리학에서도 가능함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보여주었다. 최창조(1978)는 풍수에 관한 연구를 개척하여 지리학사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 주었으며, 또한 풍수를 소재로 한 문화·역사지리학의 연구가 가능함을 일깨워 주었다. 류제현(1979)은 여주·이천 지방을 사례로 하여 한국 촌락의 입지와 형태를 연구함에 있어서 버어클리 학파의 방법이 별다른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는 한국 문화·역사지리학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일대 비약을 가져 온 시기이다. 우선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편수가 크게 증가 하였으며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이 훨씬 다채로워졌다. 문화·역사지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의 수가 크게 신장되었으며 이 분야로 국내외에서 박사 논문을 제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학문의 도약을 토대로 1980년대 말에는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이하 한국문화지리학회)가 창립되고 그의 전문 학술지인 '문화역사지리'가 창간되기에 이르렀다.⁶⁾

이 시기의 문화·역사지리학의 발달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모든 논문을 검토하고 언급하는 것은 지면상 거의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회고와 전망을 하고자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새로운 경향의 조명에 더 많은 배려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선 시기의 학문적 전통이 지속되는 면은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언급하

고, 이 시기에 제출된 박사 학위 논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향을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박사 논문들은 단편적인 논문이 아니라 장편의 논문이므로 방법론의 적용이나 영역의 설정에 있어서 실험적인 면이 많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이 분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총 13명으로, 그 중에서 미국이 4명, 프랑스 1명, 한국 8명이다. 국내 학위자를 출신교별로 보면 서울대 5명, 경희대 2명, 동국대 1명이다. 이들은 앞선 시기의 전통을 이어 나가는 입장에서 기존의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심화시키거나 정착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전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한국 문화·역사지리학의 지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문화·역사지리학의 연구 주제가 고지도, 민가, 취락 일반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1980년대는 그것이 인문지리학의 연구 대상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박사 학위 논문들의 주제는 농촌 촌락을 비롯하여 교통과 상업, 종교와 종교취락, 어업과 어촌, 도시와 교통, 농업, 공업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주제는 역시 촌락으로 3-4편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이문종(1988)은 태안반도에 분포하는 촌락의 입지와 형태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기원과 진화과정을 환경,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남궁 봉(1983a: 1983b: 1984: 1985)은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저지대에 발달한 개척촌의 발생과 변천과정을 환경, 정치·제도(식민지주의)와 관련시켜 분석하고 있다. 이 두 논문은 1970년대 말부터 한국문화·역사지리학계에서 실험되기 시작한 촌락에 대한 연구 노력을 성공적으로 집대성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두 작품은 연구 주제의 설정과 방법론의 적용면에서 버어클리 학파의 영향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최기엽(1986)은 전국에서 몇 개의 동족촌을 선정하여 그것들의 형성과정을 사회사적인 맥락에서 해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준선(1989)은 또한 한국에서 동족촌이 전통촌락의 전형으로 발달해 온 과정을 농업경제사와 가족사 회사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배경으로 하여 논

하였다. 그의 박사 논문은 프랑스 학계에서 한국학 연구의 유용한 자료로 평가받아 불어로 1992년에 출판되기도 하였다.

최영준(1982)은 조선시대의 영남대로를 경관의 측면에서 복원하고 영남대로 주변의 경제적 변화를 도로의 기능과 관련시켜 고찰하였다. 그의 논문은 현지답사와 문헌조사의 두 방법을 이상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지리학자로서 역사학자나 인류학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연구를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 이혜은(1982)은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의 초기 발달과정을 교통과 관련시켜 설명함으로써 도시의 과거지리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신중성(1989)은 한국에서 기독교의 전래와 전파 과정을 공간적 패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국에서도 종교의 문화·역사지리적 연구가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임덕순(1985)은 수도 서울의 입지와 형태의 변천과정을 정치와 제도적 요인에 입각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의 연구는 정치지리학이 문화·역사지리학과 상당한 부분에서 중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양보경(1987)은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읍지에 나타난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문화·역사지리학이 활용할 수 있는 고문헌의 폭을 확대시키는 공헌을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지리학사에 관한 지식이 과거의 지리를 복원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김일기(1988)는 고평의 어업과 어촌의 변천과정을 경제·사회사적인 측면에서 묘사하고 분석하였으며, 그것과 관련된 물질문화 자체에도 민속학적인 입장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의 논문은 과거 사회의 변용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여 생활사의 민족지적 서술의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류제헌(1987)은 종래의 경험적 연구를 답습하는 대신 문화생태학의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호남평야라는 지역의 환경, 경제·사회적 변화를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한국 문화·역사지리학에서도 이론적 정립과 경험적 연구를 결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참신하다고 하겠다. 이전(1988)은 미국 남부의 도작 농업이 발생하여 확대해 나

가는 과정을 연구하여 한국인으로서 미국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박종서(1988)는 한국 사찰과 사하촌의 연구에서 사찰이 문화·역사지리학의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며 앞으로 발굴 가능한 소재를 풍부하게 담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홍렬(1989)은 재래 공업의 입지와 발달과정을 환경적 요인과 관련시켜 설명하면서 공업이라는 주제가 문화·역사지리적으로 접근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박사 논문들은 한결 같이 그것들이 다루는 연구 대상과 주제에 알맞게 연구 방법론을 적용시키고 있다. 이것들은 하나 하나가 연구 주제와 방법론이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실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인문지리학의 전분야와 연결될 수 있을 만큼 문화·역사지리학의 연구 주제가 확대되었다는 점은 지리학의 다른 분야가 활성화되는 사정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겠지만, 이 분야 박사학위자의 단기적인 급증은 경이적인 사건이라고 기록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 연구에서 이것들 중에서 어떠한 주제와 방법론을 보다 더욱 심화하고 세련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1990년대로 넘겨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 현직 교수로서 박사 논문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서 전혀 새로운 연구 주제를 독자적으로 개척한 사람은 김연옥과 최창조이다. 김연옥(1985)은 이 시기에 한국의 기후와 문화라는 연구 저서를 출간할 정도로 방대한 양의 연구업적을 쌓았다. 이 연구는 싸우어가 제안한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자연지리적 요소의 변화라는 논제를 충실히 추기한 역작으로 한국에서도 자연·역사지리학의 성립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최창조(1984)는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한국의 풍수사상연구를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였다.

1970년대에 등장한 연구 주제 중에서 1980년대에도 꾸준히 발전되어 나간 것은 고지도, 민가, 취락 등이었다. 취락은 촌락과 도시로 구분되어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촌락에 대한 개념과 연구 방법론이 크게 확대되고 진전되었

다. 고지도와 민가를 연구하는 전통은 각기 이찬(1980a; 1980b; 1986; 1989)과 장보용⁷⁾을 중심으로 꾸준히 유지되면서 정착의 기틀이 다져졌다. 송성대(1989)는 도서지방의 초옥민가에 대한 개념과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면서 민가 연구의 수준을 가일층 향상시켰다.

1990년대에도 박사학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한편 1980년대에 박사 논문을 제출한 사람들에 의한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이 지도한 석사 논문들이 이에 가세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몽일(1988; 1990)은 한국풍수사상이 촌락의 입지와 형태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에서 풍수가 지리학사의 탐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관념론적 접근에 의한 문화·역사지리적 연구가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이정만(1991)은 농촌의 현대화과정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생태적 측면에서도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논문을 작성하였다. 김기혁(1991)은 조선·일제시대 농업지대의 변화를 분석하여 산업화시대 농업지대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초로 삼고 있다. 그의 논문은 농업지리의 연구에서 과거의 지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박해옥(1992)은 백제 사비도성을 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통하여 복원함으로써 한국에서도 고대도시의 역사지리적 연구가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정광중(1994)은 일본 공예작물의 농업지역을 분석함에 있어서 김기혁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여 농업지역의 연구에는 과거지리의 이해가 불가피함을 보여 주었다.

1980년대에는 다양화된 이 분야의 연구 경향에 대한 의사교환과 토론의 장으로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창립되었다.⁸⁾ 1991년에는 이 학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 연구와 공동 저작이 시도되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⁹⁾ 1995년에 이 학회가 개최한 한국 고지도 국제 학술 심포지움은 한국 문화·역사지리학이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¹⁰⁾

이 시기에는 또한 1980년대에 작성한 박사 학위 논문을 연구 저서로 출판하거나 평소의 연구물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 내는 예가 많아졌다.¹¹⁾ 이 분야 연구 저서의 출간수가 지리학의

어느 분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출판 활동이 활발한 양상을 보인다. 이 중에서는 문공부의 우수 도서로 선정된 것도 있고 관련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은 것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지리학을 소개하는 개론서들이 시중에 선을 보였으며, 이것들은 하나 같이 대학 교양과목의 교재로 호평을 받고 있는 중이다.¹²⁾

또한, 1990년대는 1980년대에 잠시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한국지리학사의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는 조짐이 보인다.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고지도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풍수지리사상과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가 부활되었으며, 정상기, 최남선, 최한기, 류형원, 이븐 할둔 등과 같은 개인의 지리사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현대적 해석이 시도되었다.¹³⁾

2) 미래

본고에서는 한국 문화·역사지리학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 훈련, 연구, 교육의 세가지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문화·역사지리학의 그동안의 발달과정과 최근 동향을 고려할 때, 문화·역사지리학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쌓아야 할 지식과 기술을 제안할 수 있다. 문화·역사지리학 자체가 몇개의 상이한 학문의 경계지대에 위치하는 분야이므로,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문화·역사지리학의 하부 분야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의주도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문화·역사지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지리학 이외의 학문들에 관한 지식이 다양하게 요구된다. 문화·역사지리학의 연구에는 자연지리학, 지도학, 생물지리학, 역사학, 사회과학의 타 분야(특히, 인류학이나 고고학)에 관한 어느 정도의 소양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문화·역사지리학에 입문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모든 종류의 역사를 통독하는 것이다. 역사에 관한 광범위한 독서는 비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과 해석 뿐만 아니라 지식과 해석 자체를 비판하는 태도를 길러 주기 때문이다.

문화·역사지리학 연구에서는 실내에서 발굴한 과거에 관한 지도와 기록 자료를 야외에 가지고 나가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일 때가 많다. 문화·역사지리학자는 무엇보다도 야외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과거의 지도와 기록자료를 해독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역사지리학의 야외작업은 다른 종류의 지리학적 작업에 비해 훨씬 더 어렵지만 그 성과 만큼은 더욱 보람 찬 것이다. 이 작업은 상당히 예리한 관찰력, 단서에 대한 지속적 경각심, 가설에 대한 유연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현재의 토지이용을 지도화하는 것과 같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편안한 작업이 아니다.

야외관찰을 수행할 때 참고하는 기본적인 자료는 지도, 통계, 기록, 구전 등이다. 이 자료들은 야외관찰의 계획과 실행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방향을 안내해 준다. 그러므로, 문화·역사지리학자는 야외작업은 물론이고 문헌조사에 대한 고도의 숙련이 필요하다. 한국의 고문헌이란 대부분이 한문과 일본어로 쓰여져 있으므로 문헌의 해독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 언어를 별도로 습득해야 하는 고충을 이겨내야 한다. 앞으로 지금까지 사용하여 온 것 이상의 고문헌자료를 발굴할 수 있으려면 한문과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문화·역사지리학자가 많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역사지리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종류의 역사는 지리학사이다. 지리학사에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지성적 유산이 있다. 특별히 가치있는 지리학사는 과거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연구를 한 위대한 개인에 대한 일차적인 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다른 사람의 비평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고유의 시각으로 그들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문화·역사지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한국지리학사에 대한 관심을 견지하면서 자신의 연구 취향에 따라 어떠한 인물 개인의 지리사상을 탐구하는 것을 권장할 만하다.

문화·역사지리학은 인류학과 마찬가지로 문헌 조사와 야외작업을 결합한 연구 방법론을 개척해 온 분야이므로 지역의 종합적 연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¹⁴⁾ 그것이 국내 지역이든 해

외 지역이든 지역연구란 그 지역의 과거에 관한 지식, 그것에 대한 현재의 각종 증거에 대한 장악력, 특정한 문화가 점유한 장소에 대한 친숙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역사적 지역연구를 지향하는 비교 지역지리학(comparative regional geography)은 문화·역사지리학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은 지리학의 최고 형태이자 가장 오래된 전통인 것이다(Carl O. Sauer, op cit, p.11).

그동안 한국학 연구는 국어 국문학이나 역사학과 같은 인문학에 치우쳐 있는 감이 없지 않았다. 한국학계에서는 한국 문화 전반에 관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조사와 연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문화 전체를 조망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에 문화·역사지리학이 기여할 부분이 많다.

끝으로, 문화·역사지리학이 대학이나 사회의 교육활동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대학생 일반에게 지리학의 관점을 잘 소개하는 교양강좌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문화·역사지리학은 대학의 교양과목은 물론이고 시민 일반을 위한 교양강좌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리학에 대한 문화·역사지리적 접근법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비전공자들이 지리학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조국과 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 거리와 철학을 담고 있는 교양강좌는 지리학의 대중화는 물론이고 지리학의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의 토론은 한국 문화·역사지리학의 현재와 미래를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 대비해 보면서 진단하고 전망해 본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한국 지리학의 짧은 역사 속에서 문화·역사지리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확인하고 음미하였다. 한국 문화·역사지리학의 지난 50년을 회고하면서 1980년대가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일대 도약의 시기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도약기가 1990년대로 이어지면서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하 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국 지리학계의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영미 의 지리학계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지 모 르지만, 인문지리학의 재구성이라는 세계적 조류 속에서 문화·역사지리학이 해야 할 과제가 무엇 인가를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영미 지리학계의 일각에서는 역사지리학이 재구성된 인문지리학의 심장부에 가까이 다가갈 것을 외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문화지리학이 인문지리학 전체를 문화적, 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포용하 자는 주장이 강도를 더 해가고 있다.

혹자들은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의 질적 토 대는 고사하고 양적 토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세 계적 조류의 도전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제안으로 받아 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적 소 견으로는 이와 같은 세계적 조류를 우리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편으 로 고문헌을 이용하여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의 전통을 정착시키는 일에 매진하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이론과 같은 새로운 철학이나 이론 의 습득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벽 찬 과제는 현재의 연구 인력으로는 힘에 겨울 것 이고 더 많은 신세대들이 문화·역사지리학에 관 심을 가지고 뛰어들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문화·역사지리학은 인문지리학의 한 분 야로 발달하여 오면서 연구 주제면에서는 인문지 리학의 타 분야와의 차이를 줄여 왔지만 관점과 방법론면에서는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 왔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관점이 근본적으로 인간주의를 지향하며 단편적인 현상의 분석적 설명보다는 일 정한 장소나 복합적인 현상의 종합적 이해를 추 구하는 것들이 많다. 현재 국내외의 지리학계에 서 인간주의가 부활하는 추세에 즈음하여 문화·역사지리학의 연구 경험이 인문지리학의 발전에 기여할 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고 하겠다.

註

- 1) 1993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회원명부에 의하면 총회원 239명중 전공자는 195명이고 비전공자는

44명이다.

- 2) 1994년 현재 대한지리학회 회원명부에 의하면 문 화역사지리학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표시한 전공분 야는 문화지리학 18건, 역사지리학 22건, 문화·역사지리학 6건, 촌락지리학 7건, 도시 지리학 17 건, 지리학사 6건으로 총 76건이다. 이 건수는 회 원 1사람이 표시한 분야를 모두 계산한 것으로 문 화·역사지리학회에 가입한 지리학 전공자의 수가 44명인 것을 감안하면 1사람 이 평균 1.7개 분야 를 표시한 것이 된다. 한편, 한국문화역사지리학 회 회원이 아니면서 대한지리학회 회원명부에 문 화·역사지리학의 한 분야라도 전공으로 표시한 사람은 61명이다.
- 3) Marie Price and Martin Lewis, 1993, "The Reinvention of Cultur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3(1), pp.1-17. 이 논문은 '신 문화지리학'의 출현을 기정사실화함과 동시에 이 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 4) 취락에 대한 연구관심을 다음 시기까지 꾸준히 이 어나간 사람은 오홍석과 나도승이었다:
吳洪哲, 1969, "제주도의 취락입지에 관한 연구: 변천과정과 입지요인을 중심으로," *地理學*, 제4 호, *大韓地理學會*, pp.41-54.
羅熹承, 1968, "地形變化와 交通路 變遷에 따른 美江里 河港聚落의 성쇠과정에 관한 연구," *公州 敎大 論文集*, 제5집, *公州教育大學*, pp.81-96.
- 5) 이찬은 1960년대 후반 서울대학교에서 문화지리학 과 역사지리학이라는 명칭의 강좌를 최초로 개설 하였으며, 제2세대의 학자들중에는 이 강좌를 통 하여 문화지리학이나 역사지리학 또는 문화·역사 지리학에 입문한 사람들이 많다.
- 6) '문화역사지리' 창간호는 1989년 6월에 간행되었 다. 이 잡지는 그 후 매년 1회 간행되어 1994년에 는 제6호가 발간되었다.
- 7) 그는 한국민가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업적을 집대 성하여 한 권의 연구저서를 집필하였다: 張保雄, 1981, *韓國의 民家研究*, 서울: 寶晉齋. 이 책은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 지리학계에 소개되었다. 그밖의 논문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張保雄, 1983, "韓國民家研究의 回顧와 展望," *地 理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石泉 李燦博士 華甲紀念 論集刊行委員會, pp.3-19; 張保雄, 1985, "韓國 民家와 日本 民家の 比較研究: 日本民家の 韓半島

起源說 定立을 위하여.” 竹坡 洪淳完教授 華甲紀念論文集, 竹坡 洪淳完博士 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pp. 349-363.

8) 이 학회는 1988년 2월에 창립되었으며 그동안 총 2회의 학술대회, 2회의 학술심포지움, 6차의 정기 학술답사, 77회의 월례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9) 회원들의 공동저서로는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관), 1991.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서울: 민음사”가 있으며, 공동연구로는 서울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서울의 경관변화”가 있다. 이 공동연구는 서울학 교양총서 2호(1994)로 출판되었다.

10) 이 학술심포지움에는 일본인 학자 1명, 미국인 학자 1명, 중국인 학자 1명, 한국인 학자 3명이 발표하였으며 이들의 전공은 역사학, 지리학, 한국학을 망라한 것이었다.

11) 崔永俊, 1990. 嶺南大路: 韓國 古道路의 歷史地理的研究, 민족문화연구총서, 2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李燦, 1991. 韓國의 古地圖, 서울: 汎友社.

柳濟憲, 1994. 韓國近代化와 歷史地理學: 湖南平野, 연구논총 9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任德淳, 1994. 600년 수도 서울: 수도의 기원과 지리적 발전과정, 지식산업사.

玉漢錫, 1994. 鄉村의 文化와 社會變動: 關東의 歷史地理에 대한 理解, 도서출판 한울.

Jeon Lee, 1991. The Historical Geography of Rice Culture in the American South, *American Studies Monograph Series* No.16, American Studies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羅燾承, 1992. 공주·금강권의 역사지리,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공주교육대학.

12) 宋成大, 1994. 文化地理學講義, 서울: 法文社.

任德淳, 1990. 文化地理學, 서울: 法文社.

李錢·崔永俊 譯(윌리엄 노튼 著), 1994. 文化地理學原論, 서울: 法文社.

13) 楊普景, 1992. “磻溪 柳馨遠의 地理思想,” 文化歷史地理, 第4號,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pp.33-52.

李燦, 1992. “『東海諸國紀』의 日本 및 琉球國地圖,” 文化歷史地理, 第4號,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pp.1-8.

崔昌祚, 1988. “道詵國師의 風水地理思想解釋,” 先覺國師道詵의 新研究, 靈巖郡, pp.135-182.

崔昌祚, 1990. “朝鮮後期 實學者들의 風水思想,” 韓國文化, 11, 서울대학교 韓國文化研究所,

pp.469-504.

李恩淑, 1990. “實學思想에 나타난 交通에 대한 認識,” 文化歷史地理, 第2號,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pp.39-56.

金斗日, 1994. “大東與地圖의 空間的 正確性,” 文化歷史地理, 第5號,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pp.31-43.

李元淳, 1992. “崔漢綺의 世界地理認識의 歷史性,” 文化歷史地理, 第4號,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pp.9-32.

崔永俊, 1992. “朝鮮後期 地理學 發達の 背景과 研究傳統,” 文化歷史地理, 第4號,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pp.53-75.

崔永俊, 1994. “『무카디마』를 통해서 본 이븐 할둔의 地理學,” 文化歷史地理, 第5號,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pp.1-30.

權正和, 1990. “崔南善의 初期 著述에서 나타나는 地理的 關心: 開化期 六堂의 文化運動과 明治 地文學의 景響,” 應用地理, 第13號, 誠信女子大學校 韓國地理研究所, pp.1-34.

14)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자가 해외연구를 시도한 것으로는 “이전, 1994. 라틴아메리카 지리: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72, 민음사”가 있다.

문 헌

金基赫, 1991. “韓國 農業地帶의 變化에 關한 研究,” 文學博士 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金富植, 1978. “韓國同族村의 變遷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I): 內陸地方,” 論文集, 제7집, 상명여자사범대학, pp.27-44.

金蓮玉, 1985. 한국의 기후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金日基, 1988. “금소灣의 漁業과 漁村研究,” 地理學論叢, 別號 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pp.1-202.

羅燾承, 1979. “개항기 금강 내륙수로 하안취락의 지리적연구(1899-1910),” 公州敎大論文集, 제15집, 公州敎育大學, pp.79-92.

南宮燧, 1983. “開拓村의 文化地理學的 研究- 全北 沃溝郡 米面 山北里 干渴地 開拓村을 中

- 心으로.”地理學的 課題와 接近方法, 石泉 李燦博士 華甲紀念論集刊行委員會, pp.492-522.
- 南宮燧, 1983, “東津江河口 干拓村에 관한 研究- 全北 金堤郡 廣活面을 中心으로,” 地理學論叢, 第10號,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pp.197-212.
- 南宮燧, 1984, “두 干拓地 空間構造의 比較研究- 米面 干拓地와 廣活面 干拓地를 對象으로,” 教育論叢, 4輯, 全北大學校 教育大學院, pp. 23-37.
- 南宮燧, 1985, “界火 干拓地의 空間構造에 관한 研究,” 全羅文化論叢, 第1輯, 全北大 全羅文化研究所, pp.77-101.
- 盧道陽, 1969, “15世紀 朝鮮의 産業에 대한 地理的 考察,” 慶熙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盧道陽, 1969, “15世紀 朝鮮의 水産業,” 地理學, 제4호, 大韓地理學會, pp.1-7.
- 盧禎植, 1969, “西洋地理學的 東漸,” 論文集, 제5집, 大邱教育大學, pp.225-255.
- 盧禎植, 1969, “芝峰類說에 나타난 地理學的 內容에 관한 研究,” 大邱教大 論文集, 제4집, 大邱教育大學, pp.131-147.
- 朴鍾敍, 1988, “韓國 寺院村의 構造와 變貌,” 地理學研究報告, 18, 慶熙大學校, 文理科大學 地理學科, pp.1-152.
- 朴海玉, 1992, “百濟 泗水都城의 土地區劃,” 文化歷史地理, 第4號,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pp.275-284.
- 宋成大, 1989, “韓國 島嶼地方 草屋民家の 地域性,” 地理學研究報告, 20, 慶熙大學校 文理科大學 地理學科, pp.1-143.
- 申重盛, 1989, “韓國 基督教의 傳播過程과 地域類型,” 地理學研究報告, 19, 慶熙大學校 文理科大學 地理學科, pp.1-110.
- 楊普景, 1987,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地理學論叢, 別號 3,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pp.1-174.
- 吳洪哲, 1974, “濟州道の 聚落形態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地域開發 論文集, 第5輯, 慶熙大學校 國土綜合開發研究所, pp.41-62.
- 柳濟憲, 1979, “農村景觀의 形態의 研究: 驪州·利川地方을 中心으로,” 地理學論叢, 第6號,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pp.96-115.
- 李夢日, 1988, “韓國風水思想의 現代地理學的 意義와 課題,” 地理學論叢, 第9號, 慶熙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pp.55-71.
- 李夢日, 1990, “韓國風水思想의 變遷過程,” 文學博士 學位論文, 慶熙大 大學院.
- 李文鍾, 1988, “泰安半島의 村落形成에 관한 研究,” 地理學論叢, 別號 6,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pp.1-154.
- 李聖學, 1968, “韓國 歷史地理 研究: 陸上交通 (主로 驛倉制를 中心으로)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論文集, 第12輯, 慶熙大學校, pp.95-116.
- 李聖學, 1969, “韓國 北方境域의 歷史地理學的 研究(1),” 慶熙大學校 論文集, 第13輯, 慶熙大學校, pp.53-62.
- 李燦, 1963, “稻作의 歷史地理的 考察: 起源과 傳播에 關하여,” 地理學, 第1號, 大韓地理學會, pp.55-71.
- 李燦, 1968,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 科學技術史, 第3卷,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pp.681-734.
- 李燦, 1975, “中部地方의 民家研究概要,” 地理學과 地理教育, 第4輯,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地理學 研究室, pp.27-40.
- 李燦, 1980, 八道郡縣地圖帖, 國學資料, 第37卷, 文化財 管理局, pp.17-19.
- 李燦, 1980, 韓國地圖發達史, 韓國地誌-總論, 建設部 地理院, pp.107-126.
- 李燦, 1986, “朝鮮王朝時代의 地圖冊,” 韓國科學史學會誌, 第8卷, 第1號, 韓國科學史學會, pp.109-111.
- 李燦, 1989, “朝鮮時代의 地圖冊,” 韓國測地學會誌, 第7卷, 第2號, 韓國測地學會, pp.69-84.
- 任德淳, 1985, “서울의 首都起源과 發展過程,” 地理學論叢, 別號 1,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pp.1-162.
- 張保雄, 1974, “濟州道民家の 研究,” 地理學, 第10號, 大韓地理學會, pp.13-31.

- 張保雄, 1974, "韓國의 民家形式分類에 關한 試論." 師範, 3, 4號, 東國大師大, pp.45-58.
- 張保雄, 1977, "鬱陵島 나리동의 투방집研究," 地理學, 第16號, 大韓地理學會, pp.25-34.
- 張保雄, 1978, "靑山島民家の 文化地理學的 研究." 地理學, 第18號, 大韓地理學會, pp.33-45.
- 崔基燁, 1986, "韓國村落의 地域的 展開過程에 關한 研究." 地理學 研究報告, 14, 慶熙大學校 文理科大學 地理學科, pp.1-154.
- 崔永俊, 1974, "開港前後의 仁川의 自然 및 人文 景觀," 地理學, 第10號, 大韓地理學會, pp.43-59.
- 崔昌祚, 1978, "陰宅風水에 대한 地理學的 解釋." 地理學論叢, 第5號, 서울大學校 社會科學 大學 地理學科, pp.91-99.
- 崔昌祚, 1984,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 韓鴻烈, 1989, "韓國 傳統手工業의 地域的 展開 過程에 關한 研究: 器工業을 中心으로," 文學 博士 學位論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 鄭光中, 1994, 日本における工藝作物生産地の地域構造に關する研究: 藥用人蔘生産地を例として, 理學博士 學位論文, 日本大學 大學院.
- Baker, Alan R. H., 1984, Reflections on the Relations of Historical Geography and the Annals School of History, in Alan R.H. Baker and Mark Billinge (ed.), *Explorations in Historical Geogra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23.
- Choe, Young-Joon, 1982, The Yongnam-Ro: An Historical Geography of a Korean Royal Road, Ph. D. Disserta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 Anthropology, Louisiana State University.
- Clark, Andrew H., Historical Geography, 1954, in Preston E. James and Clarence F. Jones (eds.),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 Prospect*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p. 85.
- Cosgrove, Denis, 1993, Commentary: On "The Reinvention of Cultural Geography" by Price and Lewi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3(3), p. 516.
- Darby, H. C., 1953, The Relations of Geography and History, Transactions and Papers, No.19,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pp.1-11.
- Denevan, W. M. 1983, Adaptation, Variation, and Cultural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35, pp. 399-407.
- Duncan, J. S., 1980, The Superorganic in American Cultur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70, pp.181-198.
- Harris, Cole, 1991, Power, Modernity, and Historic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81, pp.671
- Harvey, D., 1990, Between Space and Time: Reflections on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80, pp.418-433
- Lee, Jeon, 1988, The Historical Geography of Rice Culture in the American South,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 Anthropology, Louisiana State University.
- Lee, Jeongman, 1991, The Generation of Sacrifice: Modernization and Korean Farmer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Meinig, D., 1989, The Historical Geography Imperativ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79, pp.79-80.
- Rii, Hae Un, 1982, Genesis, Early Growth, and Impact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on Detroit, 1805-1900,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Michigan State University.

Ryu, Je-Hun, 1987, Institutionalization and Cultural Adaptation on the Honam Plain of South Korea, 1789-1982.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auer, Carl O., 1941, Forward to Historical Geogr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31, p.9.

Yi, Chunsŏn, 1992, Le Village Clanique En Corée Du Sud: Et Son Role Dans La Vie Rurale. *Mémoires Du Centre D'études Coréennes*, Vol. X, Collège De France Centre D'études Coréennes, Paris.

An Inventory and Prospect on the Half a Century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in Korea

Je-Hun Ryu*

Summary

The so-called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sometimes called even a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Geography, has been defined as an interdiscipline that encompasses several disciplines in Korea. Scholars with various academic background have participated in the academic activity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ers that was organized in the late 1980s. The academic majors of these participants are cultural geography, historical geography, history of geography, urban geography, rural geography, economic geography, social and economic history, anthropology, landscape architecture, and so on.

It was in the 1960s that articles about the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major academic journals in Korea. The pioneers of publishing these articles in the 1960s continued to conduct their research, while

training students majoring i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in the 1970s. All of these pioneers and their students were very active in the formation of identity with the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In the 1980s,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in Korea took a great leap forward both in quantity and in quality. The number of articles in the journal increased substantially, and the range of research theme and methodology extended in a great deal. It was also in the late 1980s that the Association of Korea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ers was organized in Seoul, Korea, and this association began to publish a professional journal named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once a year.

In the 1990s, single-authored books dealing with Korea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began to appear in public as textbooks or research monographs. These books are expected to speed up the spread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in Korea. If it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ontinues to grow further both in quantity and in quality as it has bee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in Korea will be able to stand as an independent academic field in the future. Until then, however, it cannot but avoid its mission to contribute to an integrated development of human geography in Korea. It has already gained not only its own merit in the humanistic perspective but also its own

strength in its synthetic understanding.

Key Words: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Cultural Geography, Historical Geography, History of Geography, Berkeley (Sauer) School, The Association of Korea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ers, 1960s, 1970s, 1980s, 1990s, Humanism, Synthetic Understanding.